

복숭아 다수확, 고품질, 고소득, 저공해, 생산을 위한 특별재배기술

장상철

(경북, 아천복숭아농장)

I. 서 론

본인은 복숭아를 연구 해야할 3가지 큰 목적이 있다.

“첫째”로는 1984년 부터 김천, 금릉지역에 핵과(복숭아, 자두, 살구등) 동우회 회장과 김천, 금릉과수협회(임의단체)의 회장직을 맡아 오면서, 복숭아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하려고, 각 농과대학과 농촌진흥청에 강사님을 의뢰 했던바, 농대 교수님들이 핵과류에는 연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연구를 해 놓아도 발표할 때나 써먹을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전주지역에 복숭아 독농가 이귀홍씨를 추천해 주셔서 이귀홍씨를 모시고 복숭아 재배기술 교육을 84년도에 실시한 바 있다.

포도와 같이 “여름 과일의 왕자인 복숭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연구토록 결심을 하였으며 현재 수입 개방에 대응하자면 고품질 고소득 저공해에 대한 영농기술 밖에 없기 때문이며, 개방화 시대가 아니라도 현재 소비자들의 취향이 “고급화와 유기농법에 의한 저공해 농산물” 생산이기 때문이며,

“둘째”로는 생산자 본인과 소비자와의 양자 다같이 “건강”을 지키기 위함이다.

본인은 86년도에 금릉원예농업 협동조합장을 하기 위하여 건강진단을 받아 본 결과 뜻밖에도 “B형 간염”으로 결과가 나와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즉시 가족 5명에게 간염예방주사를 맞도록 함과 동시에 건강을 되찾기 위하여 식단을 현미쌀과 잡곡밥에 부식으로 배추, 무우, 시금치, 상추, 썩갠, 마늘, 파, 부추, 케일, 컴프리등을 깻묵, 쌀겨, 톱밥, 계분등을 잘 발효시킨 양질의 퇴

비를 사용하여, 무화학 비료, 무농약, 유기농법으로 본인이 직접 재배한 농작물을 먹으며, 건강관리를 철저히 잘함으로서 5년이 지난 91년 7월에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하여본 결과 “B형 간염이 완전히 퇴치 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본인은 약이라고는 일절 먹지 않고 자연 건강 식품으로서 건강을 되찾았다.

본인과 같은 경우는 몇 만명 중에 한사람 있을 정도랍니다.

농약을 많이 사용하는 사과 농사를 하는 친구 중에서도 간암과 간경화증으로 사망한 사람이 여러사람 있으며, 현재도 건강이 좋지 못한 회원들이 많은 것을 볼때 건강 제일주의를 생활화하는 본인은 배, 복숭아, 자두를 5000여평 경영하면서 “농약이 건강의 적”인줄을 깨닫고 농약을 적게 사용하고 고소득을 올릴수 있는 것이 복숭아 재배로 판단하고 “내건강”도 지키고, “소비자의 건강”도 자신 있게 지킬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는 1984년 LA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사상 최대의 금메달을 획득할 때, TV를 자녀들과 같이 보면서 4명의 자녀들에게 저기 금메달이 LA 올림픽 선수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목표를 세워 나아가는 그 자기가 맡은 일에서 이름을 날리고 1등을 하는 것이 바로 금메달을 따는 것이므로 너희들도 법과 계통으로 나갈 사람, 그리고 미술계통으로 나갈 사람, 또 육군사관학교 등으로 나아갈 사람, 각자의 방향이 다르지 않느냐 각자가 나아가는 데에서 1등을 하도록 아버지와 너희들과 약속을 하자 아버지는 이 나이에 다른것은 할 것이 없고 내가 하는 “복숭아 농사에서 금메달”을 따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아버지와 너희들과의 “금메달 먼저 따기 시합”이 붙은 것이라고 선언을 하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녀들보다 아버지가 먼저 따야 자녀들에게 본보기가 되며 체면도 설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II. 연구 범위

1. 정지와 전정

① 동계 전정 : 동계 전정에는 개심자연형의 토대를 두었지만, 그 전정법에 얽매이지 않고 통광과 통풍이 잘 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빈공간이 없이 최대한 공간을 활용하여 많은 복숭아를 착과 시킬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하며, 특히 수고를 낮게 사다리 없이 서서 모든 작업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하계 전정 : 2~3회에 걸쳐서 도장지 등을 정리 해야 하며, 빈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도장지를 휘어 잡아, 다음해도 좋은 열매 가지를 만드는데 활용해야 하고 특히 결과 상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하단부에도 고사하지 않고 결실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현재 80% 정도는 하계 전정을 하지 않는 실정임)

2. 자가 효소 배양법

* 재료 : ① 도라지 효소 20g ② 흑설탕 30g
③ 물(따뜻한) 5되(10L) ④ 쌀겨 33kg

* 방법 : 따뜻한 물 5되에 도라지 효소 20g 과 흑설탕 30g을 10분정도 잘 저어 준다.

이 물을 균액이라 한다.

이 균액을 쌀겨 33kg에 버무린다.

이것을 균강이라 한다.

이 균강을 공기가 통하는 포대에 넣어, 겨울에는 따뜻한 곳에, 여름에는 그늘진 곳에 짚을 깔고 그 위에다 놓아 주면, 2~3일 정도 지나면 많은 균사가 발생한다. 이것을 그늘에 건조하여 놓고 필요할때 활용 하면 된다.(비싼 효소제를 사서 쓸 필요 없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효소를 옆면 시비와 속성 퇴비 제조시, 흑설탕 발효시, 깻묵 발효시, 흑설탕 발효 식초 등을 만들때 활용하면 된다)

3. 저렴한 양질의 속성 발효 퇴비 만드는 법

* 재료 : 계분, 돈분, 우분, 깻묵, 미강, 왕겨, 톱밥, 짚 등 쉽게 구할수 있는 것 1000kg

* 방법 : 위의 재료 1000kg을 수분 50% 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쌀겨 33kg 균강을 만들어 재료 한치 놓고 균강을 뿌려 주는 식으로 1.5m 정도 높이로 쌓고 덮어 주어야 하며, 비를 맞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름에 3일 후에 겨울에는 7일 후에 뒤짚기를 한번 해주어야 한다. 여름에는 5일후에 겨울에는 10일 후 부터 사용하면 된다.

* 사용법 : 반당 2000kg 시비 하고 로타리 친다.

4. 흑설탕 발효 효소액 만드는 법

* 재료 : ① 흑설탕 75kg ② 맑은물 100L(5말)
③ 자가 배양한 효소 4kg ④ 콩 삶은물 4L(2되)

* 방법 : 끓은 물로 잘 소독한 큰독이나 드럼통에 흑설탕을 넣은 후 맑은 물을 붓고, 자가 배양한 효소는 자루에 넣어 꼭 매어 넣는다. 콩 삶은 물을 붓고 잘 저어 준다.

3일간은 아침저녁으로 2번, 5분정도 잘 저어주고, 4일째 부터 7일간은 매일 한번씩 밑바닥의 침전물이 녹을 수 있게 잘 저어준다. 막대기는 대나무로서 직경 4cm 정도가 좋으며, 젓기 직전에 끓은 물로 소독하여 사용한다. 공기가 잘 통하는 깨끗한 형질을 두겹 접어 뚜껑을 덮고 고무줄로 단단히 매어야 한다.

겨울철에는 약 30~40일 여름에는 20~3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있으며, 겨울철 제조한 것은 8~10개월간 두고 사용할 수 있으나, 여름철에 만든것은 한달 정도밖에 사용할 수가 없으므로, 될수 있으면 겨울철에 제조 하여야 한다.(수도물은 사용할 수가 없으며 지하수 좋은 물을 사용해야 한다)

* 사용법 : 물 20L(1말)에 80cc 희석하여 옆면 시비 하면 된다.(여기에 사용한다는 효소는 비싼 값으로 팔고 있으나, 자가 배양한 효소로도 잘 발효가 되므로 흑설탕 발효액 등을 염가로 만들수가 있다)

5. 흑설탕 발효 식초 만드는 법

* 재료 : ① 지하수 맑은물 20L(1말) ② 흑설탕(삼온당) 6kg ③ 자가 배양한 효소 2kg

* 방법 : 끓은 물로 잘 소독한 독에 물과 흑설탕을 넣고, 자루에 담은 효소를 넣어 잘 저어서 두겹의 형겅으로 뚜껑을 덮고, 고무줄로 단단히 매고 2~3일마다 한번씩 저어 주면 된다. 3개월 이상 되면 사용할 수 있다.

* 사용법 : 물 20L(1말)에 80cc를 희석하여 옆면 시비 하면 된다. 식용 식초로 사용할 때는, 혼탁한 것을 채로 바쳐서 먹으면 아주 좋은 식초가 된다.

6. 깻묵 액비 만드는 법

* 재료 : ① 물 100L(5말) ② 깻묵 15kg ③ 쌀겨 5kg ④ 자가 배양한 효소 2kg ⑤ 흑설탕 발효 효소액 2L(1되) ⑥ 흑설탕 7kg

* 방법 : 위의 6가지를 드럼통 등에 혼합하여 넣고 발효 시키면 된다. 겨울철에는 20일경, 여름철에는 10일경이면 사용할 수 있다. 나일론 천으로 자루를 만들어 세탁기에 넣어 탈수 하는 것이 쉬운 방법이다.

추출액은 단지나 유리병에 넣어 냉암소에 보관하여 사용한다.

* 사용법 : 물 20L(1말)에 100cc를 희석하여 옆면 시비하면 된다. 토양에 관주할 경우에는 300cc를 희석 사용한다.

7. 청초 발효 액비 만드는 법

* 재료 : ① 물 40L(2말) ② 청초(짓이긴것) 10kg ③ 흑설탕 3kg ④ 자가 배양한 효소 1kg ⑤ 흑설탕 발효 효소액 1L(0.5되)

* 방법 : 끓는 물로 드럼통을 소독하여 위의 5가지를 혼합하여 넣고 공기가 통할수 있는 형겅으로 뚜껑을 하여 고무줄로 꼭 매어주면 된다.

봄이면 20일경, 여름이면 10일경이면 사용할 수 있다.

* 사용법 : 물 20L(1말)에 100cc를 희석하여 옆면 시비하면 된다. 토양에 관주할 경우에는 300cc를 희석 사용한다.

8. 농약 살포를 반으로 줄일수 있는 병충해 방제법

① 모든 과수의 병충해 방제에 기본 약제인 석회 유황 합제 6도 액을 철저히 살포함으로써, 월등 병해충을 박멸할 수가 있다.

② 개각충이나 응애류가 많았던 과수원에서는 7도 액을 철저히 살포하면 나무에 해로운 기계 유제를 살포치 않아도 된다.

③ 강력한 살충제요, 강력한 살균제로, 강력한 종합 살충 살균제일 뿐만 아니라 무공해 농약으로서, 석회 유황 합제를 근래에 농민들이 살포를 꺼려하는 경향을 틈타서 살균제 등 타약제로 대치도록 농약방에서 권유함으로써, 이로인해 많은 병충해가 유발되어, 농약 살포 회수가 많게 되며, 농약비와 인건비 등이 몰라서 많이 들어 가는 만큼, 바른 약제 살포법 지도가 시급하다.

이로 인하여 잎오갈병과 진딧물, 응애류, 개각충등의 발생으로 2회 이상 농약을 더 살포하는 실정이다.

석회 유황 합제는 살포시 눈에 들어가면, 눈이 좀 따갑고 눈물이 나는 점이 있으나 봄에는 바람이 10시경이 되면 대부분 솔솔 불기 시작 함으로, 전날 미리 약제를 준비하여 놓고 식전부터 보이기 시작하면 살포하여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10시경에 마치도록 하면 된다.

④ 저독성농약과 종합살균제를 선택, 즉 합성 제충 국제인 저독성 종합 살충제 “데시드” 등을 활용함으로써, 진딧물도 방제가 됨으로 진딧물 약의 혼용은 필요 없게 된다.

그리고, 미량 요소도 공급하여 주는 종합 살균제 “다이센 엠 45”를 예방 차원에서 “데시드”와 혼합 살포하면 매우 유익하다.

⑤ 농약 희석 농도와 충분한 용액량으로 살포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가들 자신이 직접 기록과 처방도 하고, 농약을 선택하는 농가가 전체 농가의 20% 정도 밖에 되지 않고, 농약방에서 외상 장부에 기록하고, 농약방에서 처방하여 주는 것을 살포 하는데, 농약방에서 처방하여 주는 것은 매상을 올리기 위하여, 비싼 농약을 혼합하지 않아도 될것을 줌은 물론 농약방들의 경쟁으로서 자기 농약방에서 구입 살포한 것이 효과가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를 들면, 500cc 한 병에 물 25말을 희석토록 되어

있는데, 23말 희석 토록 처방해 주면, 농민들은 애먹이는 병충이 딱 소리가 나도록 하기 위하여 20말로, 아주 독하게 희석하여, 살포를 골고루 철저히 하지 않고, 대충 살포하는 경우가 허다 하다.

이렇게 하면 농약대 과다와 독하게 살포 하면 나무도 해롭고 살포하는 농민도 아주 해로우니 2중 3중의 손해가 아닐수 없다.

예를 들면, 보통 용액 약물량이 40말 정도 들어가면, 농약 원액 500cc. 1병에 25말 정량으로 희석하여 용액약 물량을 50말로 하여 골고루 철저히 푹 살포하는 것이 병충해 방제도 잘되며 농약 살포 회수도 줄일 수가 있으며, 손해가 없고 유익하다.

⑥ 자가 배양한 효소와 현미 식초, 또는 흑설탕 발효 식초, 마그네슘 등으로서 진딧물, 응애류 방제 때에는 물 20L(1말)에 배양한 효소 20g + 흑설탕 10g + 현미 식초, 또는 흑설탕 발효 식초 100cc + 마그네슘 50g 을 혼합하여 4일 간격으로 2회 정도 골고루 살포 하면 방제 및 많이 억제할 수가 있다.

9. 복숭아의 단점인 많이 무르고, 수송력이 약한 것을 단단하고 수송력이 있도록 하는 법

- ① 균형 시비와 질소질 비료 과다치 않도록 한다.
- ② 하계 전정을 철저히 하여 통광과 통풍이 잘 되게 한다.
- ③ 자가 배양한 효소와 미량 원소를 옆면 살포 한다.
- ④ 과다 결실도 하지 않아야 한다.

10. 비가 자주오면 당도가 떨어져 맛이 없는 복숭아가 되는 것을 다소 맛이 있게 하는 법

- ① 거름 성분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양질의 발효 퇴비와 과석(분말) 2포, 염화加里 1포를 비가 올때에 토양에 살포하며 수확이 시작 될때나 수확중에는 황산가리를 쓰야 한다.
- ③ 물 20L(1말)에 자가 배양한 효소 30g + 흑설탕 발효 효소액 150cc + 제일 인산 가리 15g 을 혼합하여 옆면 살포 한다.
- ④ ③의 옆면 살포 용액의 3배 진하게 하여 토양에 살

포토록 한다.

Ⅲ. 다수확, 고품질, 저공해 생산을 위한 월별 관리

1. 12월과 1~2월의 관리

- ① 동계 정지 전정을 하는 시기 임으로 정지 전정을 한다.
- ② 유목때에는 골격을 튼튼하도록 하며, 수형은 개심 자연형으로 한다.
- ③ 성목일 때에는 통풍이 잘되게 하며, 결과 상승이 되지 않도록 하고, 하단 부위에도 결과지가 죽지 않도록 한다.
- ④ 수고를 2m 이내로 하여 사다리가 필요 없도록 관리에 편리 하도록 한다.
- ⑤ 2월 초순경까지는 흑설탕 발효 식초를 자기 농장에 필요한량 만큼 만들어 놓아야 한다.
- ⑥ 가을에 밀거름을 하지 못했을 경우 땅이 풀리는 즉시 시비토록 한다.

2. 3월의 관리

- ① 늦어도 이달 상순까지는 정지 전정을 마쳐야 한다.
- ② 중순에는 석회 유허 합제를 제조 해야 하며, 석회와 유허의 비율을 잘 지켜야하며, 찌꺼기가 생기지 않도록 유허를 얼거미로 쳐서 따뜻한 물로 개어야 석회와 잘 유허이 된다.
- ③ 제조된 석회 유허 합제를 하순경에, 깎지벌레류와 응애류가 많았던 과수원에는 뽕메 7도 액을 전착제를 혼합하여 살포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나무에 해로운 기계 유제는 살포하지 않아도 된다.
- ④ 깎지벌레와 응애류가 없는 과수원에서는 뽕메 6도 액을 약량을 충분히 하여, 나무를 물에 풍당 담갔다가 건져 낸다는 정신으로, 나무 전체 골고루 빠짐없이 철저히 살포 하면, 잎오갈병은 걱정할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의 모든 월동 병원균과, 월동 충과란을 박멸 함

로써, 금년 농사의 병충해 방제를 하는데 아주 수월하게 된다.

⑤ 근래에 와서는 석회 유향 합제를 과수 농민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나, 만약 대체 농약으로 살포 했을 경우, 잎오갈병 등으로 인해서 농약을 더 살포 해야 할 잘못을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3. 4월의 관리

① 본인의 30여년간 복숭아 재배 경험으로, 20여년 동안은 만개일이 김천 금릉 지역의 경우에는 4월 23~24일 이면 어김없이 만개가 되었으나, 근래 10여년 동안에는 5~7일 정도 앞당겨 만개 되는 때도 있더니, 89년도와 92년도에는 4월 12일에 만개하는 경우까지 있음으로, 냉해와 서리 피해가 우려 되어서, 적뢰와 적화 보다 완전한 적과로 열매 숙기를 하는 것이 완전하다.

② 일손 들기와 영양 손실 방지를 하기 위하여, 적뢰와 적화를 꼭 해야 할 농가에서는 필히 자가 배양 효소 100g + 흑설탕 50g + 나르젠 100g + 물 100L(5말)을 꽃 봉오리와 개화 10% 시와 만개시에 균액을 골고루 살포해 주면, 냉해와 서리 피해를 많이 예방 할 수가 있으며, 수정과 비대 촉진에도 효과가 크다.

③ 한 나무에 5~6개 꽃이 피기 시작할 때 회성병(꽃썩음병)과 진딧물 예방을 위하여, 종합 살균제와 진딧물약을 살포 하는 것이 유익하겠으나, 나비와 벌의 기피로 피해가 있음으로, 본인의 경험으로는 석회 유향 합제를 6~7도액을 골고루 충분히 험벅 살포 했을 경우에는, 이 시기에 약제는 살포 할 필요가 없다.

④ 가뭄시에는 물주기를 해야 하며, 물을 줄수 없는 과수원에는 짚등을 깔아 주어야 한다.

⑤ 하순에는 물 100L(5말)에 자가 배양한 효소 100g + 흑설탕 30g + 흑설탕 발효 효소액 300cc + 흑설탕 발효 식초 300cc + 제일 인산 칼슘 80g 을 혼합하여 엷면 살포 한다.

4. 5월의 관리

① 열매 숙기를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순으로 실시한다.

② 열매 숙기는 그 나무 수세에 알맞게 숙되 상단부에는 전체의 3/6을 착과 시키고, 중간 부위에는 2/6을 착과 시키고, 하단부에는 1/6의 비율로 적과를 해야 한다.

③ 상순에 물 100L(5말)에 자가 배양한 효소 100g + 흑설탕 발효 효소액 300cc + 흑설탕 발효 식초 300cc + 제일 인산 칼슘 80g + 마그네슘 250g 을 혼합하여 살포 한다.

④ 5월 1일 경에는 갯묵 발효 액비와 청초 발효 액비를 제조해야 한다.

⑤ 중순경에 토양 유실 방지와 제초를 위하여, 나무밑에만 풀을 뽑아 주고 제초제를 뿌려야 될때 째해서, 물 100L(5말)에 고을 300cc + 크라목손 300cc에 전착제를 혼합하여, 분무기로 압력을 약하게 바람이 없는 날 골고루 살포하면 봄에서 여름 동안에 나는 풀은 억제되며, 가을에 나는 풀은 다시 살포 해야 한다.

⑥ 제초제를 살포한 후 1~2일 후에 바로 진딧물, 잎말이 나방, 균행병, 흑성병, 잎오갈병 등 방제를 위하여, 종합 살충제 데시드와 종합 살균제 다이센엠 45를 전착제를 혼합하여 살포하여 주어야 한다. 주간과 주지에도 살포해야 한다.

⑦ 하순에 물 100L(5말)에 자가 배양한 효소 100g + 흑설탕 30g + 흑설탕 발효 효소액 300cc + 흑설탕 발효 식초 300cc + 갯묵 발효 액비 300cc + 청초 발효 액비 300cc + 제일 인산 가리 80g + 제일 인산 칼슘 80g 을 살포해야 한다.

⑧ 가뭄시 물주기를 해야 한다.

⑨ 조생종은 열매 숙기를 늦어도 말일까지는 끝내야 한다.

⑩ 봉지 씌우는 품종에는 봉지 씌우기를 해야 한다.

⑪ 중순과 하순까지는 하계 전정을 1차적으로 도장지를 정리하고, 통풍과 통광이 잘 되도록 해야 하며, 빈 공간이 있는 도장지는 다음해에 좋은 열매가지를 만드는데 이용해야 한다.

5. 6월의 관리

① 상순에 다수확을 위해서는 지주목을 세워 달아 매고, 받침목으로 조생종부터 받쳐 주어야 한다.

② 상순까지 봉지 씌우기와 중만생종 열매 숙기를 끝

마쳐야 한다.

③ 조생종 복숭아에는 10일까지 2차 하계 전정을 끝내야 하며, 가뭄시 물을 주어야 한다.

④ 상순에는 물 100L(5말)에 자가 배양한 효소 100g + 흑설탕 발효 효소액 400cc + 흑설탕 발효 식초 400cc + 깻묵 발표 액비 400cc + 청초 발효 액비 400cc + 제일 인산 가리 80g + 마그네슘 200g 을 혼합 살포 하면 비대 촉진과 진딧물, 응애류 병해가 억제 된다.

⑤ 조생종에는 중순에 염화加里 또는 황산加里 3포와 유안 1포 비율로 반당 40kg을 준비한다.

⑥ 중순에 물 100L(5말)에 자가 배양 효소 100g + 흑설탕 발효 효소액 400cc + 흑설탕 발효 식초 400cc + 제일 인산 가리 80g 을 옆면 살포 한다.

⑦ 조생종 백미, 조생수밀도, 암킹 순으로 수확이 시작되며, 빠른해 에는 17일 경부터 수확이 시작되며, 보통 20일경부터 수확이 시작된다.

⑧ 수확 방법은 조생종은 앞당겨 수확 할수록, 귀할때 비싼 값에 판매가 되므로, 보통 다른 재배 농가에서는 쉽게 2~3회에 걸쳐서 과일 끝 부분에 착색이 조금 되었다 하면, 다소 미숙과 일지라도 전부 수확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인의 수확 방법은 타 농가보다 5일 정도 더 성숙시켜, 과일 전체가 완전히 빨갛게 착색이 잘 되게 하여, 상품성을 최대한 높여 특산품에 속하는 복숭아만 골라서 (10~15회에) 걸쳐서 수확을 한다.

이렇게 여러날을 통하여 특산품만 골라서 수확을 함으로써, 인건비는 배이상 더 들어가지만, 소비자가 요구하는 착색이 잘되고 맛좋은 특산품이 70% 이상이 수확됨으로 높은 소득을 올릴수가 있으며, 본인은 미숙과는 절대로 수확하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하고 있다.

⑨ 타 농가에서 이렇게 착색이 된 복숭아를 공판장에 갖고 오면, 무르다고 상인들이 거들며 보지도 않지만, 본인의 복숭아는 착색이 잘 되어도 단단하기 때문에 높은 값에 판매가 된다.

이렇게 단단하도록 하는 방법으로는

1. 하계 전정 철저와
2. 균형 시비와 질소질 거름 과다치 않도록 함과
3. 자가 배양 효소와 미량 원소 옆면 살포와
4. 과다 결실을 피하는 등으로 가능하다.

⑩ 기술 영농을 하여 농사를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별과 포장을 믿을 수 있게 잘 하여, 제값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본인은 조생종 복숭아로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계 선별을 하여, 15kg 박스를 주소, 성명, 전화번호, 농장명을 기입한 박스를, 별도로 제작을 한 박스에 포장을 잘하여, 가락동 농산물 도매 시장의 서울 청과 주식회사 등에 출하한 결과 1박스에 33,000원~40,000원 까지 가락동 공판장에서는 최고값으로 판매가 되었다.

⑪ 이렇게 하여 조생종 복숭아에는 유해 농약을 1회 살포로서 저공해 복숭아를 생산할 수 있다.

6. 7월의 관리

① 백미 조생, 조생수밀도, 암킹 등은 상순 까지 계속 수확을 한다.

② 상순에 사자조생, 창방 등은 탄저병이 심한 시기임으로 다코닐과 데시스를 혼합하여 사전예방으로 철저히 방제토록 한다.

③ 과일 비대와 병충해 억제 및 예방으로, 자가 배양한 효소 100g + 흑설탕 발효 효소액 300cc + 흑설탕 발효 식초 300cc + 제일 인산 칼슘 80g + 마그네슘 200g + 을 물 100L(5말)에 희석하여 증만생종 복숭아에 옆면 살포 한다.

④ 7월 하순경에 수확이 끝난 조생종 복숭아 나무에 개각충과 잎말이 나방 유리나방, 응애류 방제를 위하여, 수푸라 싸이드를 전착제 혼합하여, 주간, 주지, 부주지를 중심으로 살포한다.

⑤ 중·하순에 중생종도 특산품만 골라서 수확을 실시한다.

⑥ 장마기에 배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3일 정도만 물이 고여 있으면 뿌리가 썩는다.

⑦ 장마후 가뭄시에는 만생종에는 물주기를 해야 한다.

⑧ 하순에 3차 하계 전정 실시와, 빈 공간에 도장지유인 작업을 한다.

7. 8월의 관리

- ① 상순에 중생종 수확을 계속 한다.
- ② 가뭄시에는 만생종에 물주기를 한다.
- ③ 만생종에 물 100L(5말)에 자가 배양한 효소 100g + 흑설탕 30g + 흑설탕 발효 효소액 400cc + 흑설탕 발효 식초 400cc + 깨묵 발효 액비 400cc + 제일 인산 가리 80g 을 옆면 살포 하면 병해충 억제와 과일 비대가 촉진된다.
- ④ 중순에 만생종에 가리 3포, 유안 1포 비율로 수세에 따라 추비를 한다.
- ⑤ 중순에 만생종에 탄저병 등 예방으로 살균제 다이센엠 45나 다코닐 등을 살포한다.
- ⑥ 하순에 만생종 수확을 특상품만 골라서 수확을 실시 한다.
- ⑦ 하순 말경에 아접을 실시한다.

8. 9월의 관리

- ① 만생종 수확을 계속한다.
- ② 만생종 수확이 모두 끝이 난 다음에 감사 비료를,

년간 시비량의 10% 정도를 수세에 따라서 시비토록 한다.

③ 다음해에 충실한 열매를 얻기 위하여 자가 배양한 효소 100g + 흑설탕 30g + 흑설탕 발효 효소액 400cc + 흑설탕 발효 식초 400cc + 깨묵 발효 액비 400cc + 청초 발효 액비 400cc + 요소 200g + 마그네슘 200g + 물 100L(5말)에 희석하여 옆면 살포 한다.

9. 10월과 11월의 관리

- ① 10월 상순에 양질의 발효 퇴비를 만들어야 한다.
- ② 10월 중순에 양질의 발효 토비를 반당 2000kg 정도 기비로 시비 해야 한다.
- ③ 묘목을 심어야 할 경우, 11월 상순에 병충해가 없는 튼튼한 묘목을 신용있는 묘목상을 통하여 구입하여 심도록 한다.

****** 앞으로 계속하여 소비자가 요구하고 원하는, 고품질 저공해품 생산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농산물이 완전히 개방이 되더라도 기술 영농과 고품질로서 이길수 있도록 더욱더 연구 노력 할 것을 다짐합니다.